

전남교육청, '남도 민주·평화길 프로그램' 개발한다

전남 역사 현장 체험 내용으로 연말 보급 예정



전남도교육청이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 문화·역사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 눈길을 끈다. 전남도교육청은 27일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1층 중회의실에서

남도 민주·평화길 프로그램 교재 집필위원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도 민주·평화길 프로그램 개발 회의'를 개최했다. '남도 민주·평화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

립하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느껴 건전한 국가관 함양을 위해 개발하는 것으로 전남 지역의 민주주의 현장 탐방지와 연계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된다.

학생들이 남도 곳곳에 숨어 있는 민주·평화·인권 관련 역사의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의 발자취를 느끼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르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재 집필 위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위원, 검토위원을 구성해 자료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오는 12월 초 최종 완성·보급할 예정이다.

구례영재교육원, 산출물 발표회 성료

구례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지난 26일 영재교육원 학생 및 학부모 약 90명을 대상으로 산출물 발표회를 개최했다.

구례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자연영역 초5·초6·중1 총 3개 학급으로 운영되며, 수학·과학·융합 과목의 프로젝트학습,

창의적 체험학습 등 다양한 수업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산출물 발표대회는 12개 팀이 다양한 탐구주제를 찾아 설계 및 산출물을 제작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산출물을 제작하여 발표할 때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오조봇, 코코넛 로봇 등

코딩을 통한 탐구, 일상생활 재료로 비누 만들기, 새로운 주소 시스템을 이용한 신도시 건설, 단순하고 강한 활 만들기, 아두이노 미세렌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제작, 구례의 명소에 숨겨진 수학 원리 찾기 등의 주제로 집중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조사,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발표하고 질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완도유치원, 친환경 건강 허브체험 운영



자연과 놀이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아린이로 자랄 수 있게 완도유치원(원장 편행자)은 지난 25일 완도유치원에서 학부모 100여명과 유아들이 함께

하는 체험활동 '숲이랑 허브랑'을 개최하였다.

'숲이랑 허브랑'은 학부모와 유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의 장으로 유아들이 자연을 알고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며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숲 아티스트가 되어 각자의 개성을 살려 '토퍼리' 만들기 체험과 형형색색의 이쁜다움으로 숲을 그려나가는 '숲을 만들어요'

체험,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즐거운 '숲속의 가을 단풍' 체험, 가족 사랑이 피어나는 손 마사지, 부모님의 발을 직접 씻어주며 교감하는 '허브테라피' 체험부스로 각반 교실을 꾸며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여 운영했다.

강당에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생긴 출출함을 달래줄 수 있는 맛있는 간식부스와 아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과 영화관람 부스가 운영되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만족스럽고 즐거운 체험의 시간이었다.

화순영양담당자, 전문적 학습공동체 통해 전문성 강화



화순교육지원청은 26일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순영양담당자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우리 쌀 활용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순 영양담당자들은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매달 주제를 정해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에서 영양 이론과 다양한 실습을 서로 공유하고, 학생들의 건강 관리와 식단 개발을 위해 배움과 성장을 나누는 실천중심 연수를 진행했다고 있다.

특히 이번 모임은 우리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공부하고, 학생들이 좋아할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쿠키 만들기 실습을 통해 익혔다.

우리 쌀 활용을 통한 학생 건강 지키미 연수에 참여한 이화자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음식

환경과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고 계절에 맞는 우리 지역 음식 정보를 나눌 수 있어 화순영양담당자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영양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원식 교육장은 "영양담당자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같은 연구 노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만족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듯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학교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제7회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오치초 박수민·침당고 두에 학생 금상 수상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제7회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28일 오후 2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내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광주시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여 글로벌 인재로 조기 발굴·양성하며, 다문화 다양성을 존중

하는 인식개선을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 다문화 학생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 언어로는 우르두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베트남어, 루마니아어 등으로 다양했다. 본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나의 꿈, 학교생활, 진로

계획, 문화의 다양성 등에 대한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의 순서대로 경연을 펼쳤다.

시교육청은 해당 언어의 전문가를 위촉해 내용 구성, 언어 표현, 태도 분야 등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초등부는 오치초등학교 박수민 학생이, 중등부는 침당고등학교 두에 학생이 각각 금상을 차지하는 등 총 1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전국 교원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직무연수

토크 콘서트·항일 민중음악·사적지 탐방 진행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교원을 초청하여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이하여 학생독립운동 전국 주최하는 연수이다. 이번 1차 연수에는 48명의 교원 및 전문직원이 참여하였고, 10월 11~12일에 실시

될 2차 연수에는 6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키워드 본 학생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4명의 역사선생님이 진행한 토크콘서트, 주권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항일 민중음악 작은 콘서트, 학생독립운동 주요 사적지 탐방 등이다.

연수에 참여한 타 지역 교사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학생독립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니 전체적

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진행 방식이 신선해서 좋았다.", "항일 민중음악 콘서트를 통해 광주의 감성을 체험할 수 있었고,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가슴이 뭉클했다.", "광주 지역의 뜨거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인상 깊었다.", "학생독립운동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정신 계승이라는 목적이 맞는 연수였다. 앞으로 학생독립운동에 대해 잘 가르칠 수 있겠다." 등 다양한 소감을 밝혔다.

정휘국 교육감은 "학생독립운동은 광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는 나라의 학생들이 들불처럼 함께하였고, 멀리는 해외까지 확산되어 3.1만세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의로운 학생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학생들 지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